



This is exactly what Daniel did. As he read, and studied Jeremiah he noted that God had spoken of the time of exile lasting for 70 years. God had revealed to Jeremiah that after seven decades the Babylonian Empire would fall and then His people could return to the land. Daniel's hope was that now, or very soon it would be that time. This realisation prompted Daniel to humble himself by fasting and putting on sackcloth and ashes. He then goes before God to pray fervently on behalf of himself and his people.

Part two (verses 4-19) contain Daniel's wonderful prayer. Daniel prays that God show mercy and forgiveness to His wayward people. They had not listened to the prophets, and had turned their backs on God. God had every right to judge and punish this unfaithful group of people. Daniel fully accepts this, but his plea is that God consider His name and reputation. He asks God to fulfil his promise to the people. In doing this His name will be praised and all the people who see or hear of this will again think highly of Yahweh. They will note that God is not only a God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but also a God who will extend mercy and forgiveness. Daniel earnestly petitions God to listen, forgive and act.

Part three (verses 20-27) contain the angel Gabriel's interpretation of the 70 week prophecy. God sent him to help Daniel understand. God has determined that His plan for Jerusalem and His chosen people will be accomplished in 70 weeks. As we noted last week this is actually 70 times seven units of seven. The unit in view is a week of 7 years ( so this is  $70 \times 7$  years = 490 years). This period of time is not one consecutive period. It is not an unbroken span of 490 years.

In the first period we have 7 weeks meaning 49 years. The event which begins this part of the countdown occurs when the decree goes out for God's people to return to Jerusalem and rebuild the streets and walls of the city. This aligns with the decree given by Artaxerxes to Nehemiah on March 14<sup>th</sup> of 445 BC.

Following this we have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of 62 weeks. This translates to being 434 years. When we combine the first and second period we get 69 weeks or 483 years. This takes us all the way from the decree given to Nehemiah in 445 BC to the death of the Messiah in 32/33 AD. This effectively stops the clock on God's 70 week plan.

After Christ ascended into heaven we entered the church age. This refers to the time when God determined to work through the church. Please note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God has abandoned or forgotten His promises to His chosen people. The church age will come to an end when the church is raptured. Then we come to the 70<sup>th</sup> week. This final week or period of seven years refers to the end time tribulation. God's stopwatch will once start when we see the rise of a charismatic political figure emerging as a leader from the 10 nation global world system.

The bible calls him the Anti-Christ. He will encourage Israel to sign a covenant or agreement promising peace.

However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he will break the treaty, set himself up as a god and force the world to worship him. This final week will end with the return to earth in glory of the Lord Jesus Christ. He will deal with the Anti-Christ and the 1000 year reign of Christ on Earth will begin.

Today we begin chapter number 10. Chapters 10 to 12 actually form a single unit. Within this unit we will read about Daniels fourth and final vision. We might look as chapter 10 as a preview of the vision to come and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it.

오늘은 10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살펴본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니엘서 9 장을 마쳤습니다.

9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1-3 절)은 도입 부분으로, 9 장에 기록된 일들이 다리우스 왕의 첫해에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기원전 539 년 또는 538 년입니다.

그 해에 다니엘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는 동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는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회피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약 27%)이 예언을 주제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상하고 태만한 일입니다. 예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헤드리인 해석(headline exegesis)"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뉴스의 헤드리인을 보고 현실에 짜맞추는 방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고 그 말씀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치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70 년의 유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 년 후에 바빌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그분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거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니면 아주 곧 그때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다니엘은 금식하고 배운과 재를 두집어쓴 채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과 백성을 위해 열렬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분(4-19 절)에는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 불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고려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것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창하고, 용서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3 부(20-27 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70 아레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계획을 70 아레 동안에 성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70 x 7 단위 70 times seven units of seven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레의 단위는 7 년입니다(그러므로 70 아레는 70 x 7 년 = 490 년입니다). 이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이 아닙니다. 490 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간은 7 아레, 즉 49 년입니다. 이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도시와 성벽을 재건하려는 포고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445 년 3 월 14 일에 아닥사스다그 느헤미야에게 내린 포고령입니다.

그다음에는 훨씬 더 긴 62 아레 기간이 있습니다. 62 아레를 계산하면 434 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을 합치면 69 아레, 즉 483 년이 됩니다. 이것은 기원전 445 년에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포고령부터 기원후 32/33 년에 메시아가 죽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70 아레 계시의 시계가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거나 잊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교회가 휴거될 때 끝날 것입니다. 그때 70 번째 아레가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아레 또는 7 년은 종말 환난 기간입니다. 마지막 아레의 시작점은 10 개국 세계 체제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로 약속하는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3 년 반 후에 그는 언약을 깨고 자신을 신이라고 차켜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지상으로 돌아오면서 끝날 것입니다. 그분은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10 장을 시작합니다. 10 장 부터 12 장은 실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환상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10 장은 다카올 환상과 그것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In the third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a message was revealed to Daniel, whose name was called Belteshazzar. The message was true, but the appointed time was long; and he understood the message, and had understanding of the vision.**

Yet again Daniel begins by giving us a very useful time-stamp. The things that we are about to read took place in the third year of King Cyrus of Persia. Right, let's have a quick review of history. The Babylonian Empire fell to the Medo-Persian's in 539 BC. The first King of what had previously been Babylon (now Persia) was Darius the Mede. He was appointed by King Cyrus who had been the ruler of Medo-Persia since 558 BC. However Daniel is not interested in this part of Cyrus's history. He is only concerned in the time that had Cyrus ruled over what had been Babylon. So the third year of Cyrus' reign puts us in 536 BC.

It's also important for us to note what was happening at this time as regards the Jewish nation. It will be significant later on. We need to know that in 538 BC Cyrus had issued a decree allowing the Jew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to rebuild their temple (Ezra 1:1-2). So at this point in time some of God's people had departed to return to the promised land under the leadership of Zerubbabel.

Anyway back to 536 BC. It was in this year that a **message** from God was revealed to Daniel. The word "message" in the original is *dabar* (daw-bar). It refers to a, "spoken word or utterance." So perhaps Daniel is using this word to distinguish this particular revelation from the visions or dreams he received before.

He also interestingly includes his Babylonian name of **Belteshazzar** to identify himself. Why we might ask would he do this. Perhaps it was to assure his readers that this was the same Daniel they had known from the previous chapters. He is maybe assuring them that this was the same Daniel who God had blessed with special skills to understand visions and dreams.

Daniel assures us that the message he is recording is true. We can be assured of this because it is a divine message. Human beings have three options when speaking. We can either tell the truth, tell a lie or provide some combination of these two things. God does not have these options available. God cannot lie. So when God speaks, or reveals something we can know with certainty it is the truth.

We then read that **the appointed time was long**. There is considerable disagreement about how this should be translated. Some think it means that the message was of great importance. Others scholars think it refers to the fact that it took a great effort for Daniel to understand it. Another common understanding is that the message spoke of great conflict or war to come. This is how it is translated in the ASV, ESV, NASB and the NIV. Other commentators think that it simply refers to things that will come to pass in the far distant future. Whichever of these is the case, and all may be true to some degree Daniel understands the message. He recognised that great conflict or war was coming at some point in the future. Let us continue.

**1 페르시아의 □□□□ 3 년에 벨트사살이라고 불려진 □ 다니엘은 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 그 말씀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도 매우 유용한 타임스탬프를 제공합니다. 이 일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 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죠. 바빌론 제국은 기원전 539 년에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바빌론 현재의 페르시아이었던 지역의 첫 번째 왕은 메대인 다리우스였습니다. 기원전 558 년부터 메대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고레스 왕이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레스의 전체적인 통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바빌론이었던 곳을 통치했던 시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 통치 3 년은 기원전 536 년입니다.

유대 민족과 관련하여 이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 기원전 538 년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에스라 1:1-2). 그러므로 이

사점에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미 떠났습니다.

기원전 536 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메시지 message**"라는 단어는 *dabar*(daw-bar)이고, "말씀 spoken word"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 특정한 계시가 이전에 받은 환상이나 꿈과 다름을 구별합니다.

또한 바빌론 이름인 **벨트사살**을 언급하여 자신을 밝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독자들에게 자기가 이전 장에서 등장하는 다니엘과 동일 인물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다니엘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록하는 메시지가 참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할 때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

□ □□□ □ □□□ □□□□

그런 다음 **the appointed time was long**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할 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다니엘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는 그 메시지가 다가올 큰 전쟁에 대해 말한다고 하는데, ASV, ESV, NASB 및 NIV 에서 번역된 방식입니다. 다른 주석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어느 것이든, 그리고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지만, 아팠던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 In those days I, Daniel, was mourning three full weeks. 3 I ate no pleasant food, no meat or wine came into my mouth, nor did I anoint myself at all, till three whole weeks were fulfilled.**

We learn here an interesting detail regarding Daniel's mental state. We learn that he was in a prolonged period of mourning. In the original language this is the word *abal* (aw-bal). It describes a state of grieving, lamenting or profound sadness. It is the feeling we experience when we lose someone to whom we are close. When a loved one dies we feel an intense grief over their absence. We might also mourn deeply over an accident or tragedy. I know many Koreans were profoundly distressed when the Jeju Air plane crashed at Muan Airport in December. Why we might ask do we mourn. We mourn because we instinctively know this loss to be wrong. We sense that this was not part of God's original plan or design. So we mourn not just for the personal loss of people we love, but also on a deeper level for how sin has devastated our world. Why you might ask was Daniel mourning? What provoked him to this deep sadness? Very few details are given to us so we will have to speculate.


As I told you a moment ago in 538 BC King Cyrus gave the Jews permission to leave and return home. Now we might imagine that after 70 years in captivity they were delighted and eager to go back to Israel. Sadly this wasn't the case. Their reception to their new found freedom was lukewarm at best. The prophet Ezra tells us that 42,360 made the journey back (Ezra 2:64). Now this might strike you as being a large number. But remember in the first exile around 10,000 captives had been taken. They had been in Babylon for 70 years and in that time had thrived. What I'm saying is that the vast majority decided to stay. They had made their homes in Babylon, now Persia and were happy and comfortable. They had nice houses, decent jobs and were doing well. To go back to a devastated place and have to start from nothing. No, thanks!

You might stop me at this point and rightly say that Daniel himself had decided not to return. Isn't he being hypocritical? Well, in his defence he was an old man. It would have been a very arduous trip for a man in his 80's. The train service was slow, and the seats on the bus had no cushions!

Also as we know he had power and authority in Persia. Maybe he reasoned he could do more to help his people in Persia. Pastor John MacArthur makes the case that he didn't go back because he saw it as his duty to stay and persuade other Jews to return. That I think is certainly a possibility.

Anyway it's only speculation, but perhaps this was why Daniel was in mourning. His great hope had



어쨌든 추축일 뿐이지만 아마도 이것이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 유배 기간이 끝나면 온  . 하지만 그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엄격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일종의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식은 특정한 것들을 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콜릿이나 커피에 대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과연 거부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좋은 음식**" 먹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좋은 것들"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넛, 약과, 스펀지 케이크 또는 베이글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고기와 와인도 피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우 소박한 채식 식단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그는 밥과 물로 씻어낸 빈찬만 먹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빵과 물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몸단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즐깁니다. 머리를 샴푸하고, 피부에 크림을 바르고, 향수나 애프터셰이브를 바르는 것을 즐깁니다. 다니엘이 살던 곳은 매우 덥고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모래가 섞인 뜨거운 바람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런 기후에서 무병비 상태로 살면 피부가 곧 오래된 낡은 가죽처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상쾌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연고, 로션 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3 주 동안 애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엄격한 자기 절제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4 Now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first month, as I was by the side of the great river, that is, the Tigris, 5 I lifted my eyes and looked, and behold, a certain man clothed in linen, whose waist was girded with gold of Uphaz!**

You will note here that Daniel very deliberately tells us when and where what we are about to read happened.

When did this occur? It was on the 21<sup>st</sup> day of the first month. Why be so specific? Allow me to explain. The 21<sup>st</sup> of the first month is January 21<sup>st</sup>. That's correct, isn't it? Well that's correct when using our calendar but this is not the calendar that Daniel and the people of Israel are using. The first month of their calendar is the month of Nissan (formerly called Abib). It corresponds with March or April on our calendar. This was an important month because it was when the Jews celebrated Passove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Feast of Firstfruits.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ell on the 14<sup>th</sup> through to the 21<sup>st</sup> days of the first month. Now obviously the Jews could not celebrate these special days whilst in captivity. But this didn't mean they neglected them. As a devout man Daniel remembered in his heart and thought about what these special days signified.

Where did all this occur? We are told that Daniel was by the side of the Tigris River (aka the Hiddekel). The Euphrates and The Tigris rivers were separated by about thirty-five miles (56 km). Babylon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was much closer to the Euphrates. So why Daniel was on the banks of the Tigris River is not revealed to us in scripture? Was he on government business in that area? Was he a keen fisherman? Or had he deliberately gone to this location to pray? We cannot say for sure. But the fact that he lifts his eyes up towards heaven certainly makes it seem as if he was in prayer.

Let us turn next to consider what it was that Daniel saw. He witnessed a man **clothed in linen whose waist was girded with gold of uphaz**. Okay, the first thing to say is that this would have been quite shocking. There you are praying quietly on the banks of the river and you look up to see this. A celestial being appearing before you. Frequently in the Old Testament heavenly visitors appear dressed in fine white linen (Ezekiel 9 and 10). The same applies in the New Testament. In Mark chapter 16, the angels that appear at the tomb of Christ are clothed in fine white linen. The reference to linen here may also be intended to make us think of the priestly class. They wore clothes made from the finest linen.

The sash or belt that girded his waist was beautifully embroidered or fashioned from the finest gold.

Such attire makes us think of splendour or majesty. It is the kind of clothing worn only by the most special of people. Who you might ask is this man dressed in such a distinctive way.

Identifying this person is not easy. Allow me to run through the possible candidates. Is it the angel Gabriel? This is what some bible teachers suggest. However Daniel had previously met Gabriel. So if it was him why not just say so. Was it another unidentified angel? This is the view of Jewish commentators and some modern Christians. Or was it the angel Michael? Possibly, but the problem with this view is that Michael is mentioned later on as helping this “person” (Dan 10:13).

Or was it a Christophany, a preincarnate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Christ?

Some aspects of the description certainly match those given by the Apostle John during his experience on Patmos (Revelation 1:13–16). However, some might quite rightly point out that Jesus would not have needed the help or assistance of Michael to overcome anyone (Dan 10:13).

So what's going on here? Who is this “man?” Let me give you what I believe to be the answer.

I think that here in chapter 10 there are two figures in view here. This first figure that Daniel encounters is God as represented through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Jesus Christ).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this radiant and impressive being as none other tha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owever later in this chapter from verse 10 onwards we are talking about another “person” entirely. Jesus has left the scene and an unnamed angel is ministering to Daniel. This is my view, but of course I encourage you to read and study these things for yourself.

#### 4 그해 첫째 달 24 일에 □□ 티그리스 강변에서 있었다 5 그때 □□ 보니 가는 모시 옷을 입고 순금 띠를 두른 어떤 □□ □□ 앞에 □□□□ .

여기서 다니엘은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매우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달 21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21 일은 1 월 21 일인데, 현재 달력을 사용하면 그렇지만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아닙니다. 그들의 달력에서 첫째 달은 나산월 이전에는 Abib 이라고 불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월이나 4 월에 해당합니다. 이 달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기념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첫째 달 14 일부터 21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날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다니엘은 이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 일명 핫데겔) 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약 35 마일(5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부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열렬한 누사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터 이곳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본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나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위스 금띠를 두른 □□□□□□□□**. 먼저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강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 천상의 존재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놀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자주 천상의 방문객들이 고운 흰 모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에스겔 9, 10 장).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 장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고운 흰 모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시 옷은 제사장 계층을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허리를 두른 띠는 아름답게 수놓아졌거나 가장 좋은 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그런 옷차림은 화려함 또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가장 특별한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옷차림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 그가 가브리엘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전에 가브리엘을 만났으므로 그랬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주석가와 일부 현대 기독교인들의 의견은 그가 알려지지 않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 미기엘이었을까요?



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수천 명의 흥분한 팬들과 함께 경기장에 있는 경우에, 홈팀이 골을 넣거나 경기에서 이길 때 군중은 하나가 되어 기쁨에 함성을 지릅니다. 이 인물이 말할 때 그런 □□□□□□□□□□ .

이 인물의 모습이 그 한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구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 And I, Daniel, alone saw the vision, for the men who were with me did not see the vision; but a great terror fell upon them, so that they fled to hide themselves.**

Daniel clearly was not alone when this event transpired. We do not know who his companions were. Were they other Jews going with him to pray, or was he accompanied by Persian officials or a bodyguard of some kind? Whatever the case there were other men with him. However it was only Daniel saw this figure. Daniel was the only person who was “tuned in” sufficiently to observe this supernatural spiritual reality.

This of course is evidence that this all happened whilst Daniel was awake, and that this was not a dream.

However despite not being able to see the figure the men sensed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We can see in this story certain parallels with what happened with Saul.

As he encounters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those he was with heard the voice but saw nothing (Acts 9:1-7).

As I often point out the world we experience with our five senses is not all that exists. I know the “scientific “ world largely dismisses the supernatural realm. But the bible presents it as being real and true. It tells us that beyond what we can “experience” lies the supernatural world. It's just as real as our world, but simply that we cannot see or sense it. On very rare occasions it does become manifest. Also some people have a certain sensitivity to the supernatural.

I remember as a child going for a walk with a family friend. Part of the walk took us up a hill upon which stood a church. As we stood on the crest taking in the view this family friend said she had a sense that great evil had once been present here. No one else in the party had these feelings. Many years later I found out that the church, as many were in the UK was built over a pagan place of worship. Who knows what wicked acts had taken place in that area. We can only guess at how that ancient evil still lingered. This woman clearly had an acute sense of the supernatural evil that still permeated that place.

Anyway these men with Daniel sense that something awesome and inexplicable was happening. A great fear came over, they started to shake with terror and they ran off to hide. What was it that spooked them? It was I believe the power of the presence of God. Their fearful response is a very understandable reaction when in the presence of the majestic holiness of God.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seeing how Daniel was affected by this vision.

**7 이 환상을 본 □□□ □ 혼자뿐이었다 □□ 함께 있던 □□□□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 달아나 숨었다**

다니엘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혼자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 하러 간 다른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관리나 경호원이 그와 함께 있었을까요?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다니엘뿐이었습니다. 다니엘만이 유일하게 이 초자연적인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다니엘이 깨어 있는 동안 일어났고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 것도 볼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9:1-7). 제가 종종 지적하듯이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과학적" 세계가 초자연적 영역을 대체로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험" 할 수 있

는 것 너마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만큼이나 실제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족의 친구와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서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이 친구는 이곳에서 과거에 대단히 나쁜 일이 있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에 저는 그 교회가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이교도 예배 장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사악한 행위가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대의 악이 어떻게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친구였던 그 여성은 여전히 그곳에 스며든 초자연적인 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무언가 굉장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움이 밀려왔고,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숨으려고 달아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거룩함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 Therefore I was left alone when I saw this great vision, and no strength remained in me; for my vigour was turned to frailty in me, and I retained no strength. 9 Yet I heard the sound of his words; and while I heard the sound of his words I was in a deep sleep on my face, with my face to the ground.**

Daniel saw whilst the other men with him merely sensed the presence of this awesome figure. They were terror stricken and ran off to hide leaving Daniel alone. Daniel however did not flee or attempt to hide. He sensed that this figure meant him no personal harm. However he was impacted by this figure's appearance and speech. The experience left him entirely drained of strength and energy. He was left feeling faint and weak.

When the being speaks in a roaring or deafening voice we also see an interesting reaction. Daniel seems to pass out or faint. He ends up face down on the ground. Many biblical descriptions of heavenly encounters include similar reactions (Matthew 17:5-6). If, as I said earlier what Daniel is seeing here is a preincarnate appearance of Christ, this reaction is even more understandable.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see Daniel encounter another spiritual being.

**8 그래서 혼자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9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경이로운 인물의 존재를 느끼기만 하는 동안 다니엘은 그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고 다니엘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인물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인물의 모습과 음성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다니엘은 힘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창백해지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인물이 큰 균종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흥분하게도 다니엘은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단채 쓰러집니다.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천상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17:5-6). 앞서 말했듯이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 모습을 보았다면 이 반응은 더욱 이해할 만합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이 또다른 영적 존재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The importance of self-discipline and denial**

In our passage today we saw Daniel impose a policy of strict self denial upon himself. We might say that he willingly abstained from some of the things that make life pleasurable and joyful. He gave up delicious food, and being able to properly wash and care for his physical appearance. Enjoying good food and drink is part of a happy and fulfilled life.

God provided us with a wonderful range of delicious and appetising foods. Korean cuisine is varied and often delicious. There are so many tasty things to eat. So God wants us to eat (with moderation) and take pleasure from the amazing range of foods he has given us. Daniel however saw the necessity of giving up some of the pleasures of life temporarily in order that he might draw nearer to God. He denied himself in order that these things not distract or divert himself from what was important.

Today we live in a world where people demand near instant gratification. We want to be served, satisfied and provided for immediately. The idea of having to delay or put off gratification is incredibly unappealing to most people. We want whatever we want and we want it now! We order things online and expect them to arrive within 24 hours. In a restaurant we want the food to arrive quickly. Any lengthy delay makes us angry or irritable. If something breaks or becomes defective we want it repaired or replaced instantly.

I imagine then for most people today what Daniel voluntarily went through would be very challenging. Imagine yourself in his shoes. Could you live on rice and vegetables only for three weeks? Maybe you could, but you'd find it hard not to mention boring. Could you live without your cream, lotions or cosmetics for nearly a month? Just imagine that. For most of you listening that probably sounds like torture.

But let's be serious for a moment. When was the last time any of us imposed any form of self-denial upon ourselves as we sought the Lord? For most of us our time in fellowship or seeking the Lord has to fit in with our schedule. It's what we want that's important. It gets slotted in after we've done the things we want to do. What do we say to ourselves? I'll read my bible after I've watched the latest episode of my favourite drama series. I'll pray right after I've checked my Instagram, X or social media messages. I'll read that bible commentary just as soon as I finish this exciting sci-fi book. Does that sound like you? To my shame it sounds like me.

So I wonder whether we ought to from time to time follow Daniel's lead. Do we need a little self denial? Do we need a “fast” from some of the things that have high-jacked our attention and our affections? Do we need a break from the smartphone, TV or internet or the books we like. A moment when we put aside all these things and devote the time instead to God. I'd argue that we all do need a little self-denial. Think of how we would benefit from doing so.

Daniel did it. May we learn from him and follow his lead.

### **1 자기 훈련과 절제의 중요성**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은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그는 삶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들을 가까이 포기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포기했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맛있고 식욕을 돋우는 다양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한국 요리는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먹고 그분이 주신 다양한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삶의 즐거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에서 자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문한 것이 바로 나오기를 바라고, 요구가 즉시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이 충족되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

어지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24 시간 이내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래 지연되면 화를 냅니다. 무언가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되거나 교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이 가까이 행했던 자기 절제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밥과 야채만으로 3 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겹고 힘들 것입니다. □□, 로션 또는 화장품 없이 거의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문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는 동안 스스로 이런 절제를 행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바쁜 스케줄에 주님과 그의 교제 시간을 끼워 넣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난 후에야 겨우 하나님과의 시간을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나요? □□□□ □□□□ □□□□ □□ □ □ □ □ □□ □□□□. 인스타그램 X 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기도하지. 이 신나는 공상과학 소설책을 끝내자마자 바로 성경 주석을 읽어라. 여러분도 이런가요? 부끄럽게도 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때때로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약간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 않□□?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아간 어떤 것들로부터 "금식fast"을 해야 하지 않□□? 스마트폰, TV, 인터넷 또는 좋아하는 책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대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 않□□? 저는 우리 모두가 약간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유익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고 그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 **2 Tuned into God's frequency**

Do you remember the old style radios that required you to tune in to the radio frequency you desired? Today modern technology has made these things obsolete. You click a button and its done automatically. But I remember in my youth carefully turning the dial so that I could receive a particular radio station's broadcast. The airwaves would be all crackly and full of white noise and then with just a minor adjustment or tweak you'd achieve crystal clear clarity. You'd hear clearly what you wanted to hear.

Daniel through his constant devotion and attention to God was perpetually tuned to God's frequency. This was why when Jesus appeared to him on the banks of the Tigris he alone was able to see Him. Daniel's spiritual health was so good that he only required minor tuning adjustments.

What about us? How's our "spiritual tuning?" How close are we to being on God's wavelength? Are we living in a way that aligns with what God wants and expects?

Are we hearing God's voice loud and clear? Or have we drifted away and are surrounded by static, or white noise. The world is full of competing signals. Signals that sound nice and tickle our ears. Perhaps it is these that have captured our attention.

If we have wandered away then its time to re-tune. It's time to get back into the bible with more urgency. It's time to increase the frequency and urgency of our prayer life. This is the only way we can twiddle those dials and put them in the proper setting. So, as I often say perhaps it's time for us to step back and assess our Christian walk.

Are our hearts and minds tuned into the static of the world? Or are we properly tuned to God and what He wants for our lives? Let's tune ourselves into God's frequency.

## **2.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다**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에 맞추어야 했던 옛날식 라디오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의 현대 기술은 이런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맞추집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특정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듣기 위해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동안 지저직거리고 잡음이 가득했지만, 조심스럽게 조정하면 아주 맑고 선명한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주파수에 항상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티그리스 강둑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오직 그만이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사소한 조정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우리의 "영적 조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파장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고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  
□□□□□□□□□□ □□□ □□□ □□ □□□□□?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전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기 좋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하는 전파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이런 주파수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파수가 잘못 맞추어져 있다면 다시 조율할 때입니다. 서둘러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빈도와 간박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이얼을 돌려서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하듯이,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세상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제대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봅시다.